


|  |                 |  |  |
|--|-----------------|--|--|
|  <b>국토교통부</b> | <h1>보도참고자료</h1> |  | 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<br><b>보다나은 정부</b> |
|  | <b>배포일시</b>     | <b>2018. 11. 10(토)</b><br><b>총 2매(본문 2매)</b> |  |
| <b>담당 부서</b>   | 공공주택지원과         | <b>담당자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과장 김영혜, 사무관 박선동<br>· ☎ (044)201-4530, 4531     |
| <b>보도일시</b>  |                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## 국토부,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 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1월 9일(금) 새벽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  - \* '18.11.9(금) 05시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(2~3층 53개실) 3층에 발생한 화재로 사상자 18명 발생('18.11.9. 22:00 기준)
  -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(총 40명, '18.11.9. 22:00 기준) 중 사상자 18명('18.11.9. 22:00 기준)을 제외한 **22명**에게 '서울형 긴급복지' 사업에 따라 **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**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.
- 국토부에서는 지난 포항지진('17.11.15)을 계기로 마련된 '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' 규정('18.9.28, 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3)에 따라,
  - 종로구에서 해당 피해자들을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·통보하는 즉시,
  - 한국토지주택공사,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인근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○ 또한, 금번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

-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 계층(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)에게 최소한의 보증금(50만원) 및 월세(시세 30%)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'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'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금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분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”할뿐만 아니라,

○ “지난 10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「취약계층·고령자 주거지원방안」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”하겠다고 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박선동 사무관(☎ 044-201-453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